

# ‘K관광 메카’ 명동 “인산인해 기대감 높지만...”

## 중국인 물려온다

###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에 명동상권 기대감 ↑ “중경기 침체로 중국인 구매력 우려도 있어”

중국인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금지했던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6년 5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면세·화장품 등 관련 업계가 들쭉이 있다.

연간 800만명에 달하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중국 특수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면세점과 화장품 로드숍, 의류 매장 등이 물려 있는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메카’ 서울 명동 거리를 찾아가 봤다.

11일 오전 방문한 명동 거리는 태풍 ‘카눈’ 여파로 비가 많이 내렸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삼정들이 줄줄이 폐업해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엔데믹 기조로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명동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명동 중심가에는 팬데믹 기간 중 자취를 감췄던 화장품 ‘로드샵’이 한 집 건너 한 집 쫓아 준비했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중국어와 일본어로 고객 행위를 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다만 중심가를 벗어난 골목골목에는 아직도 ‘임대 구함’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나붙은 공실도 많이 눈에 띄는 등 아직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난지 못한 분위기가 있다.

화장품 로드샵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됐다는 뉴스를 봤다”며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멀었는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온다니 매출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온다고 해도 중국인의 구매 파워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사드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한류 인기도 다소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화장품 로드샵 매장 직원 B씨는 “팬데믹 때 문을 닫았다가 작년 6월 다시 문을 열었는데, 매출이 코로나 이전만 영 못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오지만 옛날 같이 돈 쓰는 사람은 없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 같이 캐리어를 가져와서 쓸어담듯 쇼핑하는 관광객들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분위기도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면세점도 비가 와서인지 비교적 한산했지만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C씨는 “코로나 때보다는 손님이 늘었지만 20~30% 회복한 정도다”며 “중국인 손님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돌아오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품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D씨는 유커의 구매력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유커도 옛날 같지 않다”며 “과거에는 관광버스를 타고 중국인 관광객이 수백 명씩 몰려와서 싸들이하듯 쇼핑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인들 구매력이 떨어진 게 느껴질 정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 같은 구매력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 업계는 엔데믹 분위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객단가가 높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면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객단가는 70만~100만원 가량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면세업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 허용은 대비와도 같다. 다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줄어든 데다 애국 소비 등의 여파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마케팅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 없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전망했다.

## 제주도 관광업 날개달아... “호텔·카지노 고객 맛이 분주”

### 제주 카지노 업계 “본격 리오프닝”...채용·타깃 상품 확대 여행업계, 특화 상품 더해 기업 대상 행사 유치 적극 나서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중국인들의 인기 여행지’ 제주도 내 카지노·여행·숙박업계가 고객 맞이에 벌써 분주한 모습이다.

큰손으로 알려진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대거 돌아오면서 사실상 엔데믹 이후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를 입을 것이라 기대에서다.

제주도 지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이 확대되면서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활기를 찾을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현재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은 7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지만 연내 17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기 여행지로 꼽히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카지노·여행·숙박업계도 대대적인 ‘유커 맞이’에 나섰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전 식음업장에 영어와 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주문할 수 있는 주문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중국어는 간체자와 번체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식음업장의 운영시간도 대폭 늘렸다. ‘포차’ 라운지 38’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새벽 1시 반까지 운영한다. 다른 요일엔 자정이 넘는 12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 포차는 드라마 등으로 우리나라의 ‘포장마차’ 문화를 접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장마차 음식 뿐만 아니라 한라산 소주로 만든 칵테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K패션쇼 한컬렉션의 영업시간 역시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한시간 연장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투숙비율이 61%를 넘어 제주를 대표하는 핵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호텔 객실과 레스토랑·카지노·쇼핑몰 등 드림타워 전 분야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드림타워 카지노’ 직원을 400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최근 중국과 제주도를 잇는 직항 노선 재개로 지난 7월 순매출 201억1500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지노는 ‘큰 손’들의 유입으로 매출이 움직이다보니 비교적 소비 규모가 작은 단체관광객의 유입만으로 매출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면 “대신 카지노 여행에 눈치를 보던 ‘큰 손’들이 전보다 쉽게 국내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돼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랜드카지노’를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역시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로 인해 그간 침체됐던 제주 외국인 관광 시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중국 경제 상황이나 트렌드를 분석해 상품을 개발하고 직원 대상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맞이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행 업계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번 관광재개에 대해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며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의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여 양국 간의 여행객 교류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 가이드·호텔·식당 등 국내 관광 인프라 점검 및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인바운드)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아웃바운드)을 주 고객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단체관광 재개 양국관계 회복에 기여하면서 인바운드와 MICE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하는 내국인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 역시 “국내 주요여행업계는 대부분 아웃바운드 중심”이라면서도 “한국인이 중국에 입국할 때 지문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주요 호텔들이 대부분 특급호텔이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다보니 중국 단체관광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일부 나온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 시장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특급호텔들은 단체관광객이 주 소비자층은 아닌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중국을 잇는 노선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내 중국인 방문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6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중국 직항노선을 하반기 17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엔 18개 노선 주 200편 이상으로 확대한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